

## 【 해외금융 뉴스: 일본 】

### 재무성, 법인세 감세에 따른 재정확충방안 발표

- 최근 일본 재무성과 세제위원회는 내년도 세재개정으로 법인세율이 5%로 인하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별조치 폐지와 과세기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 발표함.
- 이번 재정확충 방안에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인 나프타 면세의 일부 과세, 연구개발세의 폐지, 기업의 설비취득 비용 비과세 처리, 감가상각제도의 재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2~3조억엔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 재무성은 법인세율 5% 인하가 실행되면 약 1조 6천~2조 5천억엔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경제산업성은 감수액 규모가 그보다 적은 약 1조엔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 세제위원회의 법인세 감세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증가 규모 (억엔)
조세특별조치 재검토	연구개발 촉진세 폐지	2,700~5,100
	정보기반 강화세 폐지	1,200~1,400
	나프타원료 면세 폐지	4,300~4,400
	기 타	6,000~6,700
과세기반 확대	감가상각제 재검토	6,000~8,000
	이월결손금 사용 제한	4,000~5,000
	배당금 익금산입 적부 검토	1,500~1,700
총 2조 5700~3조 2300		

자료 : FujiSankei Business | 관련 기사 참조

- 업계는 이번 안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재무성 독단으로 발표되었으며, 업계를 포함한 기업 전체에 각종 세금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음.
- 정부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감세 대신 다른 특소세를 폐지할 경우 자국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의 당초 의도가 반감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ujiSankei Business I, 11/3)